

■ 중국,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전력부하 지속 증가

- 중국 일부 지역에서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력부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. 국가에너지국(NEA) 통계에 따르면, 올해 여름철 전력성수기에 최대 전력이 전년동기 대비 100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 공급 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.¹⁾
 - 중국전력기업연합회는 여름철 중국의 냉방용 전력부하 비중은 약 30%이고 일부지역은 40%를 상회하며, 2024년 상반기 전기사용량이 전년동기 대비 약 8%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.
-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,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, 국가에너지국(NEA) 등 정부 부처, 지방정부, 기업들은 전력공급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섬.
 - NDRC는 6월 18일 뉴스브리핑에서 여름철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생산·공급·저장·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.
 - 발전부문 설비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부하 추종 발전소의 석탄 재고량은 1억 9,800만 톤에 달한다고 밝힘. 또한, 수력발전소의 저수량이 전년 동기보다 높다고 밝힘.
 - NEA는 이상기후나 기뿐 등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모니터링,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, 안후이와 네이멍구 발전소 등과 같은 전원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힘.
 - 허난, 장쑤, 안후이, 후베이 등 다수 지방정부에서는 시간대별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있는데, 장쑤와 허난은 상업용 부문을 조정하였으며, 후베이는 주거용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을 조정함.
 - 산시, 광둥, 산둥, 간쑤, 명시, 후베이 등 6개 지역은 가격신호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중임.
 - 선전은 가상발전소(Virtual Power Plant, VPP)를 전력시장에 도입하였는데, 관련 정책에서 2025년까지 1GW급 VPP를 건설하여 연간 최대부하 약 5%의 조정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.
 - 기업들은 발전량 증대, 전력용 석탄 비축 확대 등으로 전력공급 능력을 제고하고 있음.
 - 이 중 국가전력투자집단공사(SPIC)는 설비 운영 확대, 점검 관리 강화,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력 공급 기능 확대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측 및 발전능력을 지속 제고해왔으며, 이에 올해 청정 에너지 발전량은 181.81TWh에 달하였으며, 석탄 재고량은 약 1,669톤에 달한다고 밝힘.

1) 中國經濟網, 2024.6.25.